

가교일자리로서의 자영업선택

성지미* · 안주엽**

경제발전과 함께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까지 하락추세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고용주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며, 남성 자영업 비중이 급속히 상승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퇴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은퇴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 변동은 은퇴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 모두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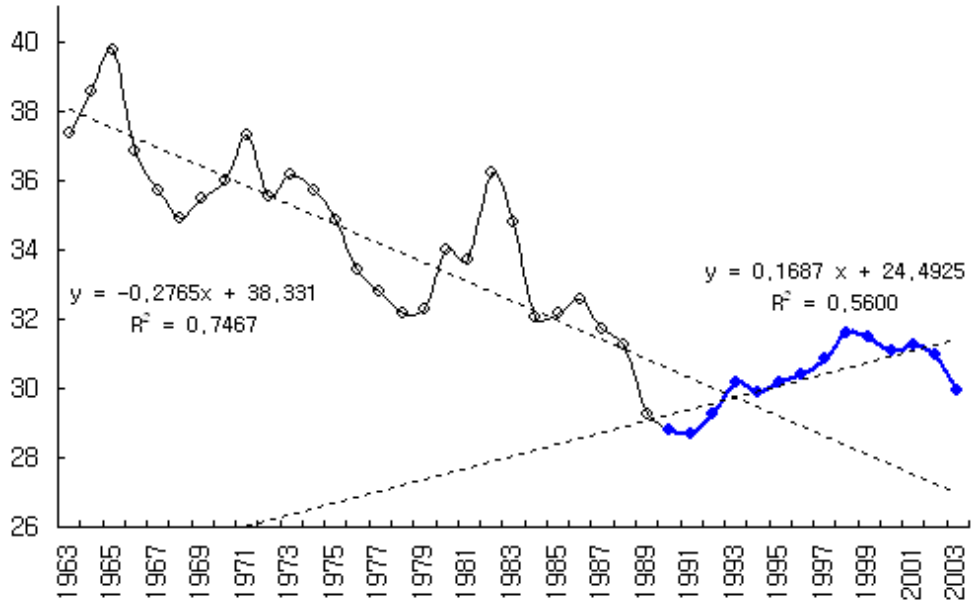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농가부문에서 취업자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림 1]에서 보듯, 1990년을 전후하여 서로 다른 두 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1993년부터 1990년까지 첫 단계는 발전도상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급속한 인구이동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이를 흡수할 공식부문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경제발전단계 초기인 1960년대 초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1965년 39.8%)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산업화와 함께 공식부문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이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영업 비중은 연간 0.28%포인트씩 줄어들어 1990년에는 28.8%에 불과하다. 1990년대 초 자영업 비중 하락추세가 반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에 따른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0.17%포인트씩 상승하고 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 email: jsung13@kut.ac.kr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mail: jyahn@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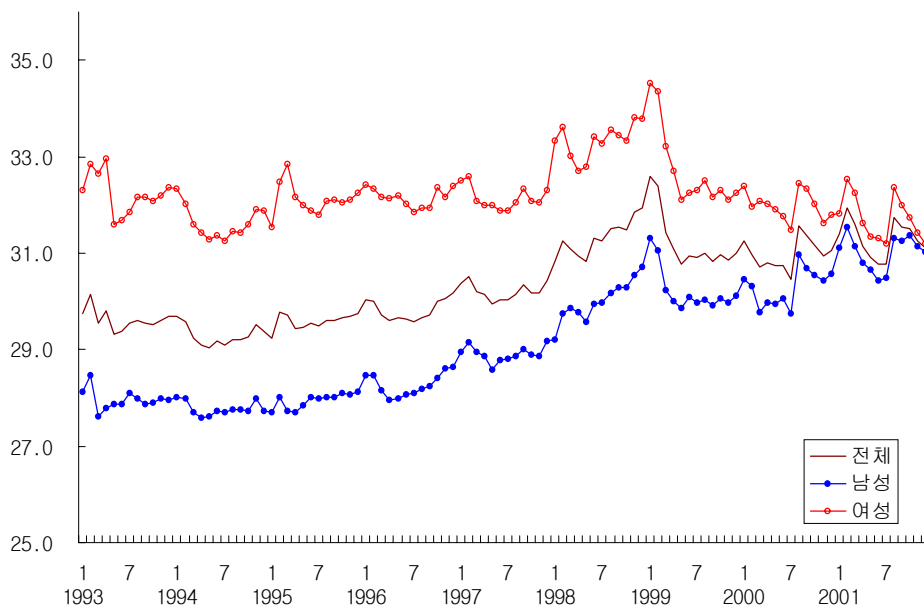
[그림 1] 자영업 비중 추이: 비농가

(단위: %)



[그림 2]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 (비농 전산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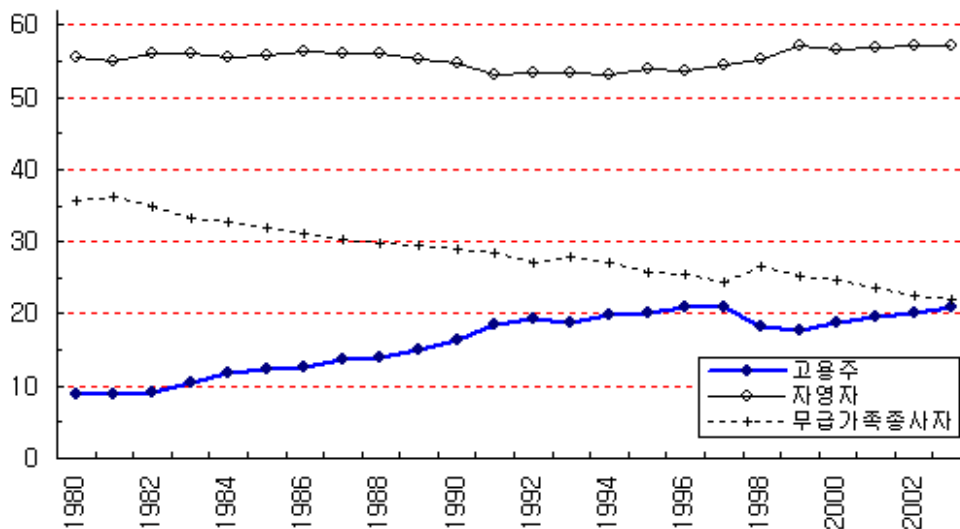


1990년대 자영업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전반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경제위기 직후 남녀 모두에서 자영업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상하였다. 셋째, 여성 자영업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남성 자영업 비중이 급상승하여 자영업 비중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영업이, 특히 경제위기와 같이 급속히 고용이 줄어들 때, 중요한 노동공급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상대적으로 여성에 국한된 자영업이 남성에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비중 변화를 자영업 세부 종사상지위에 따라 살펴보자.¹⁾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3.0~57.3%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으나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하락추세(매년 0.57%포인트)를 유지하여 2003년에는 21.9% 낮아졌다. 반면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는 8.9%에 불과하였으나 상승추세(매년 0.55%포인트)를 유지하여 2003년에는 21.1%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3] 자영업의 종사상지위별 구성 추이

(단위: %)



그림들에서 나타난 특징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자영업(이제부터는 오해가 없는 한 비임금근로를 '자영업'이라 한다.)이 갖는 역할과 특성, 그리고 자영업 선택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고용가능성이 낮아 노동시장에서 수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선택함으로써 비공식부문(농업부문의 자영업은 제외하고)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곧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소극적인 대안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 평균소득은 임금근로 평균임금보다 낮게 될 것이다.

1)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자는 1980년 이후 자료에서 구분가능하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자영업은 이와는 상이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보다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고용주 또는 자영자에 비교우위를 갖는 근로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교일자리란 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 풀타임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파트타임근로로 이행한 후 향후에 미취업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임금근로에서 바로 은퇴(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은퇴, full retirement)하기보다는 자영업으로 이행한 후 최종 은퇴하는 과정을 뜻한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제공하는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은 아직 은퇴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 경제적인 준비를 위한 시간과 소득원을 제공하는 한편 여가시간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효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반대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나 재취업과정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 진전과 함께 은퇴는 하나의 사건(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라는 인식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즉, 근로자들이 은퇴에 앞서 소위 “가교일자리(bridge job)”라는 단계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OECD회원국 통계를 보면, 은퇴시기에 가까운 고령층에서 근로자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5세~59세 남성 근로자 중 자영업 비중은 29.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평균 10.5% 포인트나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비중은 더 높아져 60세~64세 남성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39.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노동패널 제4차조사 자료를 보면, 남성 근로자 중 고용주 비중은 40대에는 17.2%이나 50대에는 11.5%로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 비중은 40대에 22.8%에서 50대에는 32.3%로 상승한다. 즉, 50대 이상 준·고령근로자 집단에서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노동패널 제1차조사~제5차조사에서 각 조사시점에 자영업을 경험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상태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자영업이 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이들 중 은퇴과정 또는 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후 최종 퇴장하여 자영업이 은퇴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와 노동시장 진입과정이나 또는 재취업과정에서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은퇴가교직과 진입가교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²⁾ 실증분석에서는 경기변동이 이러한 자영업의 가교직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국내 자영업 연구에 나타나는 경향과 가교직 일자리에 대한 외국문헌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인표본의 제5차조사까지

2) 물론 노동시장 퇴장 후 더 이상 근로하지 않는 경우가 완전한 은퇴를 의미한다.

나타난 취업유형을 살펴본 후 자영업을 가교직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은퇴가교직과 진입가교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II. 국내 자영업 연구 경향

1. 자영업선택에 관한 연구

미시적 관점에서나 노동공급 측면에서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류재우·최호영(1999)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1985년~1998년)를 이용하여 1990년 이후 자영업 비중 증가를 자영업종사자의 전반적인 특성 및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자영업주(자영자와 고용주를 포함)를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류재우·최호영(2000)은 다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자영업 비중 증가를 자영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선택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안주엽(2000)은 『한국노동패널(KLIPS)』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김우영(2000)은 근로자를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두 대안의 선택요인을 분석하고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종사상지위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금재호·조준모(2000)는 노동시장 진입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로 표본을 구분하여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비교하였다. 안주엽(2000)은 실직을 경험한 근로자가 재취업과정에서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성별로 분리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다.

한편, 성지미(2002)는 선행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여성의 자영업 선택³⁾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표본만을 대상으로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은 여성자영업에 대한 현황과약을 비롯하여 자영업의 선택요인 및 지속기간 등 다양한 측면을 여성을 중심으로 또는 남성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지미·안주엽(2002)은 자영업 소득과 자영업 연간매출액으로 표현되는 자영업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안주엽·성지미(2003)는 자영업의 생성 및 소멸을 즉, 자영업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전병유(2003)는 자영업 선택에서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을 초점을 맞추어 『한국노동패널(KLIPS)』 제1차~제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통하여,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사

3)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소위 생계형과 기업형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종사자로 구분되는 비율로 높아 자영업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을 합하여 표본을 구성할 경우 성별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분석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자영업과 가교직에 관한 연구

자영업이 가교직의 역할을 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자영업을 직업전환과정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영업을 완전한 은퇴 이전에 근로와 은퇴 간 가교일자리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영업을 은퇴이전의 가교일자리로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선행연구는 은퇴라는 연구주제에서 다루어졌는데 실증분석에서 패널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연구에서 제한점이 될 수 있다. Ruhm(1990)은 가교자리(bridge jobs)와 부분은퇴(partial retirement)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부분은퇴⁴⁾라는 용어는 완전은퇴(full retirement)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며, Quinn(2000)에서는 은퇴로의 가교직에 풀타임근로에서 파트타임근로로의 전환과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포함시키고 있다.

Ruhm(1990)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career job)를 그만두고 가교직(bridge job)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되는 경우 주된 일자리와 비교하여 다른 직종(occupation)이나 업종(industry)에서 일하는 경향이 많고 가교직 일자리는 성별, 영구소득 및 주된 일자리의 연금(pension)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Quinn(2000)은 가교일자리로 전환비율을 임금근로와 자영업종사, 풀타임근로와 파트타임근로로 파악하여 자영업이 가교일자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영업은 근로시간과 일의 유형에서 유연성을 가져 고령자들에게 점진적 은퇴를 경험할 수 있게 하므로 고령층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Bregger(1996)는 연령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창업 및 사업체경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보다 잘 구비되는 한편 연령증가와 함께 임금근로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여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내연구 중 자영업을 직업전환과정에서 선택하는 노동공급의 한 방안으로 자영업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 류재우·최호영(1999)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1997년 10월~1998년 9월)를 이용하여 전직률을 분석하여, 자영업주가 사업에 실패할 확률은 높지만 상용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다른 자영업으로 이동하거나 임시·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높고, 자영업으로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근로부문에서 경쟁력이 낮은 임시·일용근로자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전병유(2003)는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실업률과 자영업선택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떨어내기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류재우·최호영(1999)에서 보듯, 경기변동과정(외환위기 과정)에서 상당 규모 자영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용주가 자영자로 전환하였거나 새로이 창출된 자영업 취업은 임금근로에서 실직한 비교우위가 없는 근로자가 창업한 것이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4) 부분은퇴에 대한 연구로는 Gusteman & Steinmeier (1984), Honig & Hanoch (1985) 등이 있다.

III. 「한국노동패널」과 자영업

1.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5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직전 일자리의 특성, 15세 이후의 취업력(work history)에 관한 회고적 설문을 포함하는 직업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2차조사(1999년)부터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류(유형 1~8까지)하고 각 조사시점사이에 발생하거나 소멸한 일자리를 추적하고 있다. 제3차조사(200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데 비하여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제4차조사(2001년)에서, 비록 부가조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이 상당히 보강되어 현 사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업종, 사업체명, 사업체소재지, 무급가족종사자 수 및 사업체규모 등), 창업당시의 현황(사업체 시작시점, 창업동기, 유산상속여부 및 상속자, 사업체 창립시점,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방법 및 구성 등), 창업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창업훈련(7종) 이수여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현재 당면한 자영업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영업 근로의 규칙성 및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또는 그만둘 당시)의 월평균 자영업소득 및 연간매출액,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주가 되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 자영업을 그만 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고용형태의 변화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에서 은퇴이전까지 어떠한 직업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직업력을 추적하고자 5년간의 조사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을 표본으로 하였다. 1차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회고적인 직업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2. 패널표본 취업유형

제1차년도~제5차년도 조사시점에 나타난 노동력상태에 따라, 취업유형을 크게 취업경험자와 취업무경험자로 분류하고, 취업경험자는 다시 자영업 무경험자와 자영업경험자로 구분한다.⁵⁾ 자영업 무경험자는 임금근로형과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오가는 유형(임금-미취업형)이 포함되고, 자영업 경험자는 자영업형(자영업만 관찰되는 경우), 임금근로 대체형(임금근로와 자영업을 오가는 경우), 미취업

5) 제1차조사 이후 표본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직전까지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한다.

대체형(미취업과 자영업이 오가는 경우), 혼재형(임금근로, 자영업, 미취업이 모두 관찰되는 경우)이 포함된다.

<표 1>은 제1차조사 개인표본 13,738명에 대한 취업유형 분포를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5년간 계속해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개인은 4,743명으로 총 표본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을 경험한 8,995명 중 임금근로만 계속한 비율은 29.6%,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율은 18.1%,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32.9%, 자영업과 미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8.9%, 임금근로와 자영업을 경험한 비율은 6.4%로 나타난다.

<표 1> KLIPS 표본의 취업유형 분포

(단위: 명, %)

	전체	취업 무경험	취업경험	자영업무경험		자영업 경험		혼재형	
				임금 근로만	임금과 미취업	자영업 만	자영업 자영업		
전체	13,738	4,743	8,995	29.6	32.9	18.1	8.9	6.4	4.1
성별									
여성	6,950	2,995	3,955	21.3	42.1	16.1	11.9	3.8	4.7
남성	6,788	1,748	5,040	36.2	25.6	19.6	6.6	8.4	3.6
연령대									
15~29	4,258	1,758	2,500	28.5	57.1	2.8	4.3	3.8	3.4
30~49	5,411	981	4,430	35.7	20.5	22.3	8.1	8.4	5.0
50~64	2,321	812	1,509	20.7	26.7	29.1	14.5	5.6	3.4
65 이상	1,136	868	268	4.5	23.9	32.5	34.0	3.7	1.5
교육수준									
고졸미만	5,525	2,511	3,014	18.3	35.5	24.4	12.5	5.7	3.6
고졸	4,530	1,142	3,388	31.8	29.2	18.0	8.7	7.3	5.0
대졸미만	1,296	614	682	17.0	68.6	4.0	5.6	1.9	2.9
대졸	2,133	444	1,689	46.3	22.8	14.0	5.4	7.6	3.8
대학원	254	32	222	62.2	19.4	6.8	2.7	6.8	2.3

주: 제1~5년도 각 조사시점 당시 기준. 취업경험자 중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성별에 따른 취업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임금근로만, 자영업만 또는 임금근로와 자영업을 함께한 비율이 높고 한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근로와 미취업 또는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취업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에 따른 취업유형을 살펴보면 15세~29세의 젊은층의 경우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은 5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임금근로에만 종사한 비율이 28.5%이며 자영업을 경험한 비율은 5%를 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인 30대~40대의 경우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율은 35.7%로 젊은층에 비해 높고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율도 22.3%로 높아지는 반면 임금근로와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은 20.5%로 15세~29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낮게 나타난다. 50세~64세 준고령자·고령자의 경우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율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임금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은 26.7%,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율은 20.7%,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은 14.5%로 30대~40대에 비해 임금근로에만 종사한 경우의 비중은 줄어들고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임금근로에만 종사한 비율은 4.5%,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율은 32.5%로 65세 이상까지 임금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주고 있으며 반면에 자영업의 경우 실제로 은퇴 또는 연령제한이라는 개념이 적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한 비율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이 34.0%로 임금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인 23.9%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별 취업유형을 살펴보면 고졸미만의 경우 임금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고 자영업만 경험한 비율은 24.4%,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율은 18.3%이다, 고졸의 경우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아 31.8%, 임금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은 29.2%, 자영업만 경험한 비율은 18.0%로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율이 고졸미만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임금근로만 경험한 비율은 대졸집단에서 더 높아져 46.3%이고 대학원졸업의 경우에는 62.2%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만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특징적인 점은 임금과 자영업을 함께한 경험한 있는 비율인데 대졸집단의 경우 7.6%로 이는 다른 학력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 높은 수치이며 대학원졸업집단의 경우에도 6.8%로 고졸집단의 비율과 비교하면 다소 낮지만 자영업에만 종사한 비율이 6.8%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입을 알 수 있다.

<표 2>는 자영업 경험 표본에 초점을 맞춘 취업유형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표본은 3,372명인데 이는 전체 표본 13,738명에 대해 24.5%이고 전체 취업자 중 37.5%로 취업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경험자 중 자영업만 계속한 비율이 48.2%,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한 비율이 23.9%, 임금근로와 자영업을 함께한 비율이 17.1%로 나타나 자영업만 계속한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비교에서는 차이 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에 비해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에는 자영업과 미취업을 경험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임금과 자영업을 함께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에 따라 자영업 경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취업자중 자영업 경험자의 비율은 연령대 증가에 따라 높아져 15세~29세 집단에서 14.4%, 30세~49세 집단에서 43.8%, 50세~64세 집단에서 52.6%, 65세 이상 집단에서 71.6%로 나타난다. 자영업 경험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15세~29세집단의 경우 자영업만 계속한 비율은 19.2%로 불과하며 자영업과 미취업, 자영업과 임금근로를 함께한 비율이 각각 30.1%, 26.7%로 파악된다. 반면에 30대~40대의 경우 자영업만 계속한 비율이 증가하여 50.9%, 자영업과 임금근로를 함께한 비율이 19.1%, 자영업과 미취업을 함께한 비율이 18.6%로 나타난다. 준고령자·고령자에 해당하는 50세~64세의 경우 자영업만 계속한 비율은 55.3%로 30대~40대와 비슷한 반면, 자영업과미취업을 함께한 비율은 27.6%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비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더 높아져 47.4%로 파악된다.

<표 2> 자영업 경험자 유형별 분포

(단위: 명, %)

	전체	자영업형	자영업 미취업	임금과 자영업	혼재
전체	3,372 (24.5) [37.5]	48.2	23.9	17.1	10.9
성별					
여성	1,446 (20.8) [36.6]	44.1	32.6	10.4	12.8
남성	1,926 (28.4) [38.2]	51.2	17.3	22.1	9.4
연령대					
15~29	359 (8.4) [14.4]	19.2	30.1	26.7	24.0
30~49	1,940 (35.9) [43.8]	50.9	18.6	19.1	11.4
50~64	794 (34.2) [52.6]	55.3	27.6	10.7	6.4
65세+	192 (16.9) [71.6]	45.3	47.4	5.2	2.1
교육수준					
고졸미만	1,392 (25.2) [46.2]	52.9	27.0	12.4	7.7
고졸	1,319 (29.1) [38.9]	46.2	22.3	18.7	12.9
대졸미만	98 (7.6) [14.4]	27.6	38.8	13.3	20.4
대졸	522 (24.5) [30.9]	45.4	17.4	24.7	12.5
대학원	41 (16.1) [18.5]	36.6	14.6	36.6	12.2

주: 제1~5년도 각 조사시점 당시 기준. () 안 숫자는 전체 표본 중 자영업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 [] 안 숫자는 취업경험자 중 자영업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3. 자영업은 가교직인가?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한다고 상정한다면, 두 가지 개념이 설정가능하다. 첫째,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임금근로로 취업하기 위한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진입가교직’이라 하자)으로, 이 경우 이행과정은

미취업 → 자영업 → 임금근로

로 나타날 것이며, 둘째 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은퇴가교직’이라 하자)으로, 이 경우 이행과정은

임금근로 → 자영업 → 미취업

으로 나타날 것이다.^{6) 7)}

한국노동패널에서 제5차년도 조사자료까지 제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짧은 패널자료이며, 15세 이후 취업력이 이를 보완하고는 있으나, 회고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당시 변화요인에 대한 정보과

6) 진입가교직은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청년층이나 장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중년여성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은퇴가교직은 임금근로로 장기간 근로하다가 정년,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고연령자에게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7) 이행과정은 조사시점보다는 spell 단위로 파악하여 경제활동상태보다는 상태변화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조사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임금근로→미취업→자영업→자영업으로 파악되면, spell 단위로는 임금근로→미취업→자영업으로 전환한다.

약 불가능 때문에 본 고에서는 제1차년도 조사에 나타난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만 추가로 활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자영업 경험자는 4,428명(13,738명 중 32.2%에 해당)으로 조사시점만 고려한 경우보다 1,056명 늘어나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표 3>은 자영업 경험 표본을 대상으로, 진입가교직을 고려할 때, 미취업 → 자영업 이행과정 경험 여부와 그 이후 변화, 은퇴가교직을 고려할 때, 임금근로 → 자영업 이행과정 경험여부와 그 이후 변화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경험이 있는 4,428명중 1,492명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고 2,532명은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1,492명 중 1,027명은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255명은 임금근로로 다시 복귀하였고 210명은 미취업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2,532명중 1,726명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472명은 미취업으로 대체되었고 334명은 임금근로자가 되어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자영업 경험자 중 가교직 여부 분포

(단위: 명, %)

	전체	미취업 → 자영업 경험				
		해당없음	해당함. 그 이후는?			
			전체	진입가교직	자영업지속	미취업대체
전체	4,428	1,896	2,532	334	1,726	472
임금근로→자영업 경험						
해당없음	2,936	1,647	1,289	98	906	285
해당함. 그 이후는?	1,492	249	1,243	236	820	187
임금근로복귀	255	38	217	217	0	0
자영업지속	1,027	192	835	16	818	1
은퇴가교직	210	19	191	3	2	186

주: 제1차년도 조사에서 이전 직장과 제1~5년도 조사시점에서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spell 단위로 임금근로, 자영업, 미취업의 상태변화를 고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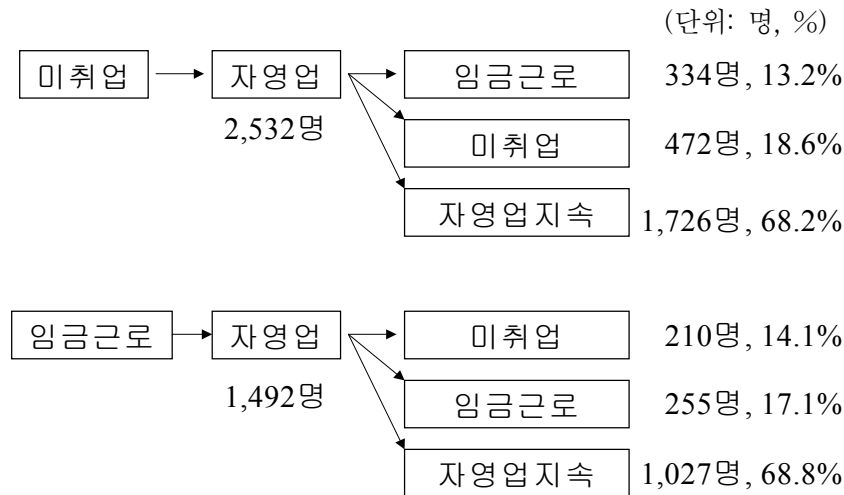
[그림 4]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2,532명 중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68.2%, 임금근로로 복귀한 경우는 13.2%, 미취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18.6%로 파악된다.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자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임금근로나 미취업으로 다시 전환할 것인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임금근로로 전환한 경우를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을 경험한 1,492명중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68.8%, 임금근로로 복귀된 경우는 17.1%, 미취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14.1%로 파악된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같이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자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임금근로나 미취업으로 다시 전환할 것인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은퇴여부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취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일단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경우이며 이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

영업이 은퇴가교직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다음 절 실증분석에서는 <미취업 → 자영업> 이행과정을 겪은 후 미취업(472명)이나 임금근로(334명)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화한 806명을 대상으로 진입가교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임금근로 → 자영업> 이행과정을 겪은 후 임금근로로 복귀하거나(255명) 미취업으로 이행하는(210명) 465명을 대상으로 은퇴가교직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본다.

[그림 4] 가교직으로서 자영업 여부



IV. 가교직으로서 자영업 결정요인

1. 표본과 기초분석

<표 4>와 <표 5>에는 자영업경험자 4,428명중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자영업경험이 있는 표본과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자영업경험이 있는 표본의 특성이 성별·연령대별·교육수준별 특성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는 진입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데 진입가교직의 비율은 미취업으로 복귀한 경우와 진입가교직의 합에 대한 것으로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1,726명은 현재까지는 고용형태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용형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포함하지 비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4> 자영업 경험자 중 진입 가교직 비중

(단위: 명, %)

	자영업 경험	미취업→자영업 경험				비중
		전체	자영업지속	미취업 복귀	진입가교직	
전체	4,428	2,532	1,726	472	334	41.4
성별						
여성	1,999	1,166	759	287	120	29.5
남성	2,429	1,366	967	185	214	53.6
연령대						
15~29	404	297	162	61	74	54.8
30~49	2,287	1,469	1,037	231	201	46.5
50~64	1,079	550	399	105	46	30.5
65세+	553	153	80	68	5	6.8
교육수준						
고졸미만	2,041	1,032	697	220	115	34.3
고졸	1,611	1,007	696	172	139	44.7
대졸미만	120	68	40	16	12	42.9
대졸	612	391	270	60	61	50.4
대학원	44	34	23	4	7	63.6

주: 미취업 복귀나 진입가교직 합에 대비하여 진입가교직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표 5>에서는 은퇴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데 은퇴가교직의 비율은 임금근로로 복귀한 경우와 은퇴가교직의 합에 대한 것으로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1,027명은 현재까지는 고용형태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용형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포함하지 비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성별비교에서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 자영업을 진입가교직으로 경험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자영업을 은퇴가교직으로 경험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대별 비교에서도 진입가교직의 비중은 낮아지고 은퇴가교직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에 따른 비교에서도 진입가교직의 비중과 은퇴가교직의 비중에 차이있는 점을 보이는데 대학원졸업의 경우 진입가교직으로 자영업을 경험한 비중은 다른 교육수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63.6%인데 반해 은퇴가교직의 비중은 가장 낮아 25.0%로 파악된다. 은퇴가교직으로 자영업을 경험한 비중은 대졸미만집단에서 가장 높아 63.6%로 나타난다.

〈표 5〉 자영업 경험자 중 은퇴가교직 비중

(단위: 명, %)

	자영업 경험	임금근로→자영업 경험				비중
		전체	자영업지속	임금근로 복귀	은퇴가교직	
전체	4,428	1,492	1,027	255	210	45.2
성별						
여성	1,999	481	298	79	104	56.8
남성	2,429	1,011	729	176	106	37.6
연령대						
15~29	404	186	114	47	25	34.7
30~49	2,287	1,020	717	166	137	45.2
50~64	1,079	227	152	35	40	53.3
65세+	553	35	23	4	8	66.7
교육수준						
고졸미만	2,041	451	304	82	65	44.2
고졸	1,611	673	472	109	92	45.8
대졸미만	120	37	26	4	7	63.6
대졸	612	304	206	54	44	44.9
대학원	44	27	19	6	2	25.0

주: 임금근로 복귀나 은퇴가교직 합에 대비하여 은퇴가교직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2. 분석모형

이미 언급하였듯, 가교직으로서 자영업을 결정하는 실증분석에서는 진입과정에서는 <미취업→자영업> 이행과정을 거친 후 임금근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취업으로 복귀할 것인가 여부를, 은퇴과정에서는 <임금근로→자영업> 이행과정을 거친 후 임금근로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미취업으로 이행할 것인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⁸⁾ 따라서 각각 자영업이 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종속변수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설정한다. 종속변수가 이진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

$$y^* = X\beta + \epsilon, y = 1(\text{자영업이 가교직})$$

으로 표현되며, y^*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는 관찰되어진 종속변수, X 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이에 상응하는 추정되어질 계수 벡터, ϵ 은 오차항, $1(\cdot)$ 는 () 안의 조건이 사실이며(true) 1, 거짓이면(false) 0 값을 갖는 지수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오차항 ϵ 가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프로비트모형(probit model)이 된다. 자영업의 가교직 역할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로는 연령(만나이), 남성가변수, 교육연한으로 표현된 교육수준, 혼인상태(기혼 유배우(준거집단), 기혼 무배우, 미혼), 주관적

8) 제5차조사(표본탈락된 경우에는 최종 관찰시점까지 자영업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는 가교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증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건강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변수, 자영업 적자 여부, 자영업 소득, 자영업 종사상지위(자영자(준거집단),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일자리의 규칙성(규칙적, 불규칙적이지만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음(준거집단), 불규칙적이고 계절적 영향을 받음)여부와 업종 가변수(도소매업(준거집단), 농림어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 현황과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과 직무내용 관련 일자리 만족도 등 주관적 만족도를 사용한다. <표 6>은 설명변수에 대한 정의 및 기초통계량을 각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진입가교직 여부에 해당하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실증분석

가. 가교직으로서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표 7>은 자영업이 은퇴가교직 또는 진입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연령은 은퇴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는 고연령일수록 다시 임금근로로 복귀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고연령자에게서 자영업이 은퇴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취업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임금근로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함을 뜻하는 것이다.

남성일수록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가교직을 택하기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하고, 미취업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퇴가교직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가교직 여부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건강상문제는 임금근로 복귀가능성이 낮고 미취업을 택할 확률이 높아 진입가교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은퇴가교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설명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의 정의	퇴직가교직 여부			진입가교직 여부		
		전체	퇴직가 교	임금대 체	전체	미취업	진입가 교
표본수		465	210	255	686	469	217
연령	마지막 자영업상태에서 만나 (세)	40.43 (10.60)	4.20 (1.08)	3.91 (1.03)	4.38 (1.37)	4.62 (1.45)	3.88 (1.00)
남성	여성이 준거집단	0.6065	0.5048	0.6902	0.4966	0.3919	0.6902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수료상태를 고려하 여 계산된 교육연한	11.34 (3.44)	11.28 (3.53)	11.39 (3.36)	10.15 (4.38)	9.48 (4.70)	11.39 (3.36)
미혼 기혼무배우	기혼유배우자가 준거집단	0.1054 0.0602	0.0667 0.0571	0.1373 0.0627	0.1001 0.0726	0.0869 0.0826	0.1290 0.0507
건강불량	건강상태가 나쁜 편=1, 그렇지 않은 경우=0	0.0817	0.1333	0.0392	0.1335	0.1843	0.0230
자영업적자	자영업 소득이 적자인 경우=1, 아니 경우=0	0.1699	0.1952	0.1490	0.2003	0.2182	0.1613
자영업소득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의 로그값	2.85 (2.25)	2.59 (2.27)	3.07 (2.21)	2.40 (2.26)	2.08 (2.20)	3.07 (2.22)
고용주	피용자없는 자영업자가 준거집 단	0.2172	0.2000	0.2314	0.1553	0.1229	0.2258
무급종사자		0.1828	0.2238	0.1490	0.2859	0.3432	0.1613
규칙적	일자리 규칙적	0.8344	0.8762	0.8000	0.8520	0.8623	0.8295
불규칙-계절적	불규칙적이고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0.1183	0.1000	0.1333	0.1016	0.0932	0.1198
생활불만족	생활만족도(생활전반): 불만족	0.3462	0.3143	0.3725	0.3440	0.3305	0.3733
근로시간불만	일자리 만족(근로시간): 아주 불만족	0.1011	0.1286	0.0784	0.0958	0.0996	0.0876
직무내용불만	일자리 만족(직무내용): 아주 불만족	0.0581	0.0714	0.0471	0.0581	0.0657	0.0415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증가율	-5.24 (6.73)	-6.05 (6.32)	-4.58 (7.00)	-5.00 (7.13)	-4.26 (7.51)	-6.62 (5.92)
농림어업	도소매업이 준거집단	0.0753	0.0667	0.0824	0.1727	0.2140	0.0829
제조업		0.1290	0.1190	0.1373	0.1147	0.1017	0.1429
음식숙박업		0.1957	0.2095	0.1843	0.1756	0.1695	0.1889
개인사업서비스업		0.1204	0.1333	0.1098	0.1176	0.1208	0.1106
기타서비스업		0.1677	0.1333	0.1961	0.1205	0.0953	0.1751

주: ()안의 숫자는 연속변수에 대한 표준편차. 이행 직전 마지막 자영업 상태에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 각 변수에 대한 값을 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표 7>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은퇴가교직			진입가교직		
상수	-2.2290	(0.6213)	***	0.7543	(0.5217)	
연령/10	0.3003	(0.0782)	***	-0.3456	(0.0664)	***
남성	-0.7659	(0.1496)	***	0.8898	(0.1306)	***
교육수준	0.0551	(0.0230)	**	-0.0093	(0.0206)	
미혼	-0.4099	(0.2282)	*	-0.2753	(0.1930)	
기혼무배우	-0.2680	(0.2874)		0.3287	(0.2568)	
건강불량	0.9720	(0.2603)	***	-1.0559	(0.2624)	***
자영업적자	0.5155	(0.2678)	*	-0.4880	(0.2154)	**
자영업소득	0.0407	(0.0550)		-0.0131	(0.0468)	
고용주	-0.0785	(0.1612)		0.2574	(0.1555)	*
무급종사자	0.2474	(0.2503)		-0.2203	(0.2042)	
규칙적	0.6891	(0.3259)	**	-0.1611	(0.2682)	
불규칙-계절적	0.5924	(0.3671)	*	0.0179	(0.3110)	
생활불만족	-0.2336	(0.1380)	*	0.3257	(0.1219)	***
근로시간불만	0.2290	(0.2311)		-0.0109	(0.2144)	
직무내용불만	0.1071	(0.3004)		-0.1542	(0.2755)	
농림어업	-0.7246	(0.2863)	**	0.1950	(0.2180)	
제조업	-0.0646	(0.2098)		0.1191	(0.1916)	
음식숙박업	-0.0465	(0.1829)		0.1652	(0.1650)	
개인사업서비스업	-0.0231	(0.2074)		-0.0097	(0.1861)	
기타서비스업	-0.3129	(0.1970)		0.3060	(0.1832)	*
- (log L)	280.12			345.62		

주: 변수의 정의는 <표 6>을 참조.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뜻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그만 둘 경우 임금근로보다는 미취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진입가교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은퇴가교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영업 소득 자체의 크기는 이러한 선택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 세부 종사상지위 역시 은퇴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영자에 비해 고용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하게 자영업이 진입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 일자리의 근로규칙성은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이거나 계절적 영향을 받는 양극단 모두 은퇴가교직 선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진입가교직 선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근로시간이나 직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반면 전반적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은퇴가교직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 미취업으로 복귀보다는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경기변동이 자영업 역할에 미치는 영향

<표 8>은 경기변동이 은퇴가교직 또는 진입가교직 선택에 미치는 추가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경기변동은 자영업 상태를 최종 관찰한 시점에서 국민총생산으로 표현한 경제성장률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우선 귀무가설

H_0 : 경기변동은 자영업이 가교직으로서 역할하도록 선택하는 데 추가효과가 없다.

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는 기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기변동이 자영업 역할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가 거의 변하지 않음을 볼 때 모형은 robust하다.

<표 8> 가교일자리로서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경기변동의 효과

	은퇴가교직			진입가교직		
경제성장률	-0.0213	(0.0098)	**	-0.0298	(0.0091)	***
상수	-2.2777	(0.6260)	***	0.6595	(0.5276)	
연령/10	0.3054	(0.0788)	***	-0.3441	(0.0669)	***
남성	-0.7855	(0.1502)	***	0.8659	(0.1320)	***
교육수준	0.0586	(0.0234)	**	-0.0097	(0.0207)	
미혼	-0.3967	(0.2294)	*	-0.2411	(0.1945)	
기혼무배우	-0.2390	(0.2913)		0.3644	(0.2575)	
건강불량	0.9927	(0.2637)	***	-1.0638	(0.2635)	***
자영업적자	0.5643	(0.2706)	**	-0.2749	(0.2306)	
자영업소득	0.0500	(0.0557)		0.0177	(0.0485)	
고용주	-0.1107	(0.1626)		0.1758	(0.1583)	
무급종사자	0.2608	(0.2519)		-0.1054	(0.2117)	
규칙적	0.5312	(0.3334)		-0.3425	(0.2753)	
불규칙-계절적	0.4512	(0.3725)		-0.1483	(0.3178)	
생활불만족	-0.2613	(0.1393)	*	0.2856	(0.1232)	**
근로시간불만	0.2161	(0.2319)		-0.0684	(0.2156)	
직무내용불만	0.1342	(0.3007)		-0.1535	(0.2776)	
농림어업	-0.7310	(0.2874)	*	0.1606	(0.2197)	
제조업	-0.0640	(0.2109)		0.0957	(0.1928)	
음식숙박업	-0.0239	(0.1835)		0.1531	(0.1662)	
개인사업서비스업	-0.0215	(0.2082)		-0.0125	(0.1873)	
기타서비스업	-0.2854	(0.1983)		0.3234	(0.1851)	*
- (log L)	277.75			340.07		
가설검정 통계량	4.74		**	11.10		***

주: 변수의 정의는 <표 6>을 참조.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뜻함. 경제성장률이 아무런 유의한 추가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정으로 검정통계량은 자유도가 1인 χ^2 -분포를 한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

경기변동이 미치는 추가효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과거 연구들이나 예상과는 다소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은퇴가교직에 대한 효과를 보면, 경기변동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는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다음에 미취업으로 이행하기보다는 임금근로로 복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진입가교직에 대한 효과를 보면, 경기변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가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임금근로로 이행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 연구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논리적인 해석은 불가능하며 좀 더 엄밀한 연구를 통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년도~제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과정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교일자리로 역할을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역할을 결정짓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결과를 간략히 요약한 후 정책방향과 향후 연구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첫째, 경제발전초기 단계에 발생한 도시화는 공식부문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을 생계형 자영업이라는 비공식부문으로 취업토록 하였으며 경제발전과 함께 이들을 흡수하는 노동수요의 창출에 따라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그 이후 하락추세가 상승추세로 반전되었다. 추세를 반전시킨 배경으로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사실과 여성 자영업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남성 자영업 비중이 상승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을 의미하며, 노동시장 퇴장과정이나 은퇴과정 또는 노동시장 진입과정이나 재진입과정에서 자영업이 가교일자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중 약 35%가 제5차조사까지 취업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취업을 경험한 표본 중 37.5%가 자영업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 중 절반은 지속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로서 자영업이 갖는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 중 약 2/3 이상은 현재까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중 45%는 미취업으로 이행하여 자영업이 은퇴과정(저연령층에게는 노동시장 퇴장과정)에서 가교직 일자리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미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근로자 중 역시 2/3는 현재까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중 42%는 임금근로로 이행하여 노동시장 (재)진입과정에서 자영업이 가교직 일자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영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표본을 대상으로 가교직 선택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는 고연령일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 문제가 있을수록 자

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행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은 은퇴가교직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진입가교직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변동 역시 가교직으로서 자영업 역할 선택에 유의한 추가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가교직 역할은 기존 연구나 예상과 부합하는 반면 진입가교직 역할은 이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이 가교직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여부는 노동시장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은퇴가교직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비하여 정부는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유인하고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패는 해당 근로자가 가진 속성과 노동수요에 의존한다. 무엇보다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숙련이나 기술수준이 낮고 임금수준이 낮았던 임금근로자 중 일부에게는 적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고령근로자는 덜 불만족스러울 것이나 이러한 일자리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이러한 직종은 임금수준이나 직위, 숙련이나 기술 등에서 중간 이상에 속하였고 (특히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들을 이러한 직종에 취업시킨다 하여도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이들 역시 이러한 단순노무직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은퇴가교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자영업이 갖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영업 창업, 지속, 발전, 운영 등 측면에서 정책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81-108.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55-80.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권 (1999. 6.): 109-140.
- 류재우·최호영.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권 (2000. 6.): 137-165.
- 문유경·성지미·안주엽.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권 1호 (2002. 3): 161-182.
- 성지미·안주엽.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권 3호 (2002. 10): 101-136.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3.): 109-132.
- 안주엽·성지미.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6권 2호 (2003. 6), 1-30.
- 전병유.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권 3호 (2003. 12), 149-179.
- Gustman, Alan, and Steinmeier, Thomas. "Partial Retirement and the Analysis of Retirement Behavi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7 (1984 April):403-415.
- Honig, Marjorie, and Hanoch, Giora. "Partial Retirement as a Separate Mode of Retirement Behavior."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 (1985 Winter): 21-46.
- Quinn, Joseph F. "New Paths to Retirement." Forecasting Retirement Needs and Retirement Wealth. Edited by Mitchell, Olivia S., Hammond, P. Brett and Rappaport Anna 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13-32.
- Ruhm, Christopher J.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8(4) (1990 October): 482-501.